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지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을 힘써 실천해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다.

03 해외에서 온 편지

아르헨티나에 뿌려진 권능의 씨앗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을 통해 심긴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는 아르헨티나 마르틴 목사의 서신.

04 간증

“하나님 권능, 정말 놀랍습니다!”

지궁경부 상피내암을 치료받은 강련희 집사와 어린 딸 두피의 아토피 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케냐 셀레스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926호 2020년 8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정부 및 지역사회 협력하며 활발한 선교사역 펼쳐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귀감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담임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는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정부와 지역사회를 도우며, 행정관서와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현장예배 재개, 지역 주민과 리더들 새신자로 등록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나이로비만민교회는 지난 7월 26일, 4개월 만에 현장예배를 드렸다. 정부에서 인원을 정해줌으로 1부와 2부 각각 100명씩 예배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리더 22명이 새신자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어린이집의 원장(운양고, 남)은 이날 예배를 드린 후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기쁨으로 간증했다.

지난 8월 2일 주일 현장예배는 3부로 나뉘어 470여 명이 예배를 드렸고 8명의 새신자가 등록했으며, 지역의 리더 4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나이로비만민교회가 위치한 우모자 지역의 신망 받는 리더(베라, 여)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나이로비만민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예배 인원 제한으로 성전에 오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미리 보내준 오디오 설교 파일로 지역 소모임 및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원 및 어려운 주민들 구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올해 3월부터, 나이로비만민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홍보 지원 요청을 받고 차량과 주의 종 및 일꾼들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구호품 전달 등 구제에 힘써왔다.

이로 인해 정부 및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지역 관서장과 리더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나이로비만민교회는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지역 정부의 행정관서장은 “만민교회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 활동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지역 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만민교회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교회다”라고 말했다.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쌓여 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내 정부의 주요 담당부서장들이 나이로비만민교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추세다.

지난 6월에는 우모자 지역 리더들이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교회를 방문하였고, 이들은 “정부의 주민 지원 활동에 만민교회가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 지역의 많은 주민이 영적으로 깨어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도와달라”며 이를 위해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가정 폭력, 질병 등 해결 받아 행정관서 심방 요청

최근 행정관서에서는 가정 폭력, 질병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가정을 나이로비만민교회에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주의 종들은 심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결의 복음을 전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고 있다.

그 결과 과탄 직전의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질병 등 각종 문제를 해결 받아 성전 외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현장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오동고, 마거릿 부부는 가정폭력과 폭언 등 문제가 발생해 이혼을 생각했으나 행정관서장의 요청으로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과견한 주의 종의 심방을 받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부는 각자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특송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을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민들은 “다른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만민은 더욱 활발하게 모임이 이뤄지고 말씀에도 은혜가 넘치니 감사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귀감이 되는 교회로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호수아 7:10~13)

여리고성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목표물인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작으므로 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아이성을 탐지하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수 7:3) 하고 건의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지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6명 가량의 사망자가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한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수 7:6-9).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전의 이유를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는데,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수가 없다고 까지 하셨지요(수 7:11~12).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

람이 누구인지 모든 백성 가운데 뽑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스스로 성결케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인 가운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중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또 그 가운데 삼디 가족이 뽑혔고, 가족 중에서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혔지요(잡 16:33).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비를 통해 꼼짝없이 지명된 아간은 여호수아가 죄상을 묻자,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행한 일을 설명하며 흠친 것을 장막 안에 숨겨 놓았다고 실토했습니다(수 7:19~21).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록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 후반절에 “...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하게 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성결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전체 가운데서 떠나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죄의 흔적을 온전히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아간을 잡고 그 흠친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가지고 그에게 속한 가족과 짐승들,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 뒤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지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단지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훔쳤다고 이러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을 도적질한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곧 만홀히 여기고 믿지 않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상세

하게 알려 주십니다(수 8장).

그 방법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마치 패하는 척하고 달아남으로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유인해 내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비어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사르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군사들을 성읍 서편에 매복시키고 자신과 모든 군사는 성의 북편에서 공격했다가 이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 차례 승리를 맛본 아이 사람들은 금세 방심하여 성문까지 활짝 열어 놓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신이 나서 쫓아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신호하니 매복했던 군사들이 작전대로 일어나 비어 있는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였지요. 그 뒤 이미 도망할 곳을 잃은 아이 사람들을 협공하여 섬멸함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3. 아이성 정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작으니 삼천 명만 가면 되겠다’ 하고 생각 가운데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요.

곧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갈 때에 먼저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까닭은 그 성 거민들의 세력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한 후에야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독서 시 **우송료**만은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이처럼 야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때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급급하여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성을 공격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서,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함을 끊임없이 돌아보아 죄악을 벗어버림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라야 범사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4.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 전진하는 것

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했지요(신 11:26~32). 더욱이 당시 여호수아로서는 야간의 범죄로 인한 패전을 통해 다시 한번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훈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을 쌓은 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에발산 앞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선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선 르우벤과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신 27:12~13).

이 장엄하고 엄숙한 예식에 참석하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고, 또 범죄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아이성의 패전을 통해 너무나 생생

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가르친 내용이요,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계명을 명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배워도 거듭 범죄함으로 기근과 전쟁, 이방의 압제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해지면 또다시 계명을 저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당장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나 재앙이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 마음을 닦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

▲ 1997년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

▼ 1996년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 등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드립니다. 1996년 7월 20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목회자와 일꾼들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처음 아르헨티나에 오셨습니다. 세미나는 ‘교회 성장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참석했지요. 그때 스페인어로 된 당회장님의 저서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르헨티나만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세미나의 조직위원으로서, 그리고 7권의 당회장님 저서를 스페인어로 발간하기 위해 일한 사람으로서 당회장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과 지혜,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했고 1,200여 명의 목회자들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지요. 환자 기도를 통해 그들은 각종 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목회자들의 요청에 의해 또다시 1997년 10월, 두 번째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약 9,00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에서도 참석했지요. 참석한 목회자들은 영혼을 강타하는 강력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역이 달려있음을 강조하셨지요. 저희는 당회장님께 저희를 위해 기

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였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인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의 태만함을 깨우쳤지요.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르헨티나만민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일 대예배에, 그리고 매 주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는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공부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유튜브로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만민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은 당회장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의 사역을 보았고, 우리가 당회장님께서 이 나라에 눈물과 노력으로 심으신 사랑과 진실의 열매의 한 부분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넓고 큰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민중앙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회장님께서 심으신 사역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만민중앙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는 만민이고 또한 만민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2020. 7. 23. 아르헨티나만민교회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 올림.

“하나님 권능으로, 자궁경부 상피내암을 치료받았습니다”

강련희 집사 (39세, 중국 2교구)

저는 5년 전, 건강검진 시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자궁에 퍼져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두려웠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까지 있어 수술 중 지혈이 안 되면 깨어나지 못할 수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왼쪽 난소만 남기고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이 빨라 2주 만에 퇴원했지요.

그런데 안도하던 제게 1년 후 또다시 폭풍이 불어 닦았습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추적검사서에서 자궁 상피내암과 암을 재발하는 16번, 39번 고위험군 바이러스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재생불량성 빈혈 때문에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에서 내 유익에 맞게 행해왔던 분야들을 회개하고 선을 행해나가며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지요.

면역력은 계속 떨어져 빈혈로 인해 코피가 자주 나고 일단 코피가 터지면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주일 아침에 코피가 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바로 멈추고 그 뒤로는 코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초에는 옆구리부터 시작해 복부 전체에 심한 통증으로 구도를 하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몸에 엮고, 휴대폰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세 차례 받던 중 통증이 사라졌지요. 하나님 권능이 있는 까닭에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사모함으로 2019년 5월 은사집회와 8월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여 감사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뜨거움이 임했는데 9월 병원 검진 결과, 39번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의사는 제일 위험한 16번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았고 분야 분야에서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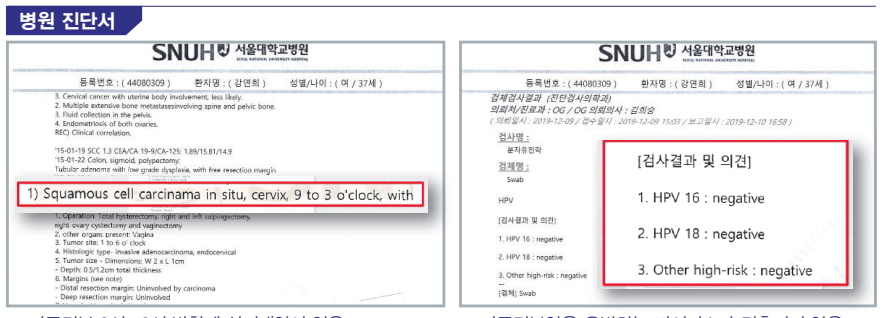
개해야 할 분야들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해 12월 초 정기검진을 받은 뒤, 저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꼭 치료받아 하나님 권능을 증거하는 열매로 나오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회장님의 꿈을 꾸었는데, 당회장님께서 제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주님께 꼭 붙들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행복해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강련희 씨의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월 30일 진료 시, “이렇게 빈혈도 있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정상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지요.

세상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자궁경부 9사~3시 방향에 상피내암이 있음 ▲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

“딸아이 두피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셀레스틴 아팔라체 성도 (33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제 딸 브리트니는 2019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후부터 딸아이의 두피가 갈라지더니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처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누구도 아이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지요. 아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어 피가 났고 저는 늘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피부염이라며 약을 주었는데 아이에게 그 약을 꾸준히 발라줬지만,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약초 상에게 찾아가 약초로 만든 약을 아이의 머리에 사용해 보았지만 그것도 전혀 차도가 없었지요.

고통으로 항상 울어대는 아이로 인해 저와 남편은 아이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야 했고,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증세는 갈수록 심해져 우울한 날들이 계속됐지요.

아이의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된 이웃의 계문토 자매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제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포기하

지 않는 전도를 통해 결국 저는 2019년 12월 15일, 나이로비만민교회 ‘환자를 위한 손수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정명호 목사님은 치료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난날 잘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딸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정 목사님이 제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딸에게서 통증이 사라졌으며, 밤에는 잠도 잘 잤지요. 고름이 멈추고 상처가 굳자 저는 너무 기뻐서 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매주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급속도로 호전돼 한 달 만에 두피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치료되었지요. 할렐루야!

치료받기 전 제대로 먹지도 못해 이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아이가 이제는 잘 먹고 잘 놀입니다. 제 딸이 살아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만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999-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원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